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찾다

④ 조동종 맹약이 남긴 것들

1910년 10월 6일 일본, 조동종 맹약(曹洞宗盟約)이 체결되었다. 당시 한국불교의 중앙기관이었던 원종종무원(圓宗宗務院) 원장 이회광(李晦光, 1862~1933) 스님이 일본 조동종과 맺은 7개 조항의 연합맹약이었다. 이 맹약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너무나 할 것 없이 한국불교를 일본 조동종에 팔아넘기는 매종(賣宗)행위로 규정하였다.

조동종 맹약은 몇 가지 의미를 남기고 있다. 첫째, 한국불교를 점령하기 위한 일본의 점진적 노력에 의한 가시적 성과, 둘째,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에 병합시킨 점, 셋째, 한국불교의 독자성과 자주성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된 점, 넷째, 민족불교 수호를 위한 임제종(臨濟宗) 운동과 그 정체를 계승한 선학원(禪學院)의 설립이다.

공교롭게도 맹약은 같은 해 8월 29일 합방조약(合邦條約)이 발표된 지 38일째 되는 날 체결되었다. 때문에 이때부터 일본불교와 친일불교가 본격적으로 일세를 풍미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합일불교와 함께 한국불교가 지닌 독자성 천명과 회복을 위한 처절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은 1905년 굴욕적인 을사조약 체결에 따른 항일의병운동 전개, 1907년 반일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당시 불교계의 화두는 추락한 한국불교의 위상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1908년 3월 6일 각 도 사찰대표 52인이 원흥사에 모여 교단 통합기관인 원종 창종을 결의하고, 종무원을 설립한 것은 그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한국불교가 지닌 정체성이 사라진지 오래였고, 종단 역시 조선시대 연산군과 중종대의 연어는 불교탄압으로 종단 자체가 해체되었으니 원종 창종(創宗)은 그 의미가 각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챙겨야 할 한국불교사를 통관하고 있는 근간이랄까 독자적 이념과 실현방식은 놓쳐버렸다.

우선 '원종(圓宗)'이라는 명명도 그 정체성이 모호한 것이었다. 다가까지 도오루(高橋亨)의 <조선불교종파체감사론(朝鮮佛敎宗派體感史論)>에 의하면 이 명명은 "신교겸수(禪敎兼修)의 종문(宗門)이라고 한 것이니, 수년 전부터 조선의 스님들이 스스로 종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였다. 친일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불교연구회 역시 정토(淨土)를 종지(宗旨)로 삼았고, 정각 원종의 구성원 또한 <종경록(宗鏡錄)>의 원종을 취한 것이 아니며, <화엄경(華嚴經)>에 나오는 원종을 취한 것도 아니었다.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당시의 정황을 조선의 스님들이 어떤 종지를 따라야 할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정토종을 취하고, 일본 진종(眞宗)에 귀의하며, 원종을 설립하고, 조동

종과 맹약을 체결하며, 일본 임제종에 부속시키는 등의 일은 들리는 소리에 따라 부화뇌동하거나 손잡고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동종 맹약에 반대하여 임제종을 설립하고 선학원의 이름을 제시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 등이 제시한 "조선에 선교양종이 있지만, 반드시 선종과 교종의 법계가 본래 임제종의 정통으로 전해서 내려왔다"는 기본적 인식과는 대조된다.

길을 나서기 전 목적지와 이정표를 챙기지 못한 당시 불교계의 종지·종통에 대한 혼란은 적어도 1941년 선학원이 개최한 유교법회(遺敎法會)직전까지도 계속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정체성을 담고 있는 조계종(曹溪宗)이라는 명칭은 찾아볼 수 없고, 기껏해야 '조선불교선교양종'이나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으로 불려

원종 창종... 불교계 결집 발원

사찰령 추진으로 인가 유보

결국 한국불교 독자성 와해

조동종 맹약 다분히 친일적

원종 고문 다케다 실권 장악

韓불교 日불교에 '매종' 평가

민족불교 수호 운동 도화선

임제종 계승 선학원 설립 계기

지곤 했다. 허기를 달래는 것에만 골몰하여 골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다.

1. 조선 전체의 원종 사원(寺院)대중은 조동종과 완전히 영구히 연합 동맹하여 불교를 확장할 것.

2. 조선 원종종무원은 (일본)조동종무원(曹洞宗院)에 고문을 위촉할 것.

3. 조동종무원은 조선 원종종무원의 설립 인가를 얻게 하는 알선의 노력을 취할 것.

4. 조선 원종종무원은 조동종의 포교에 대하여 상당한 권리를 도모할 것.

5. 조선 원종종무원은 조동종무원에서 포교사 약간 명의 인원을 초빙하여 각 수사(首寺)에 배치하여 일반 포교 및 청년 스님의 교육을 촉탁하고 또 조동종무원이 필요하여 포교사를 파견할 때에는 조선 원종종무원은 조동종무원이 지칭하는 땅의 수사(首寺)나 사원에 속소를 정하여 일반 포교 및 청년승려 교육에 종사케 할 것.

6. 이번의 동맹 체결은 쌍방의 뜻이 맞지 않으면 폐지, 변경 혹은 개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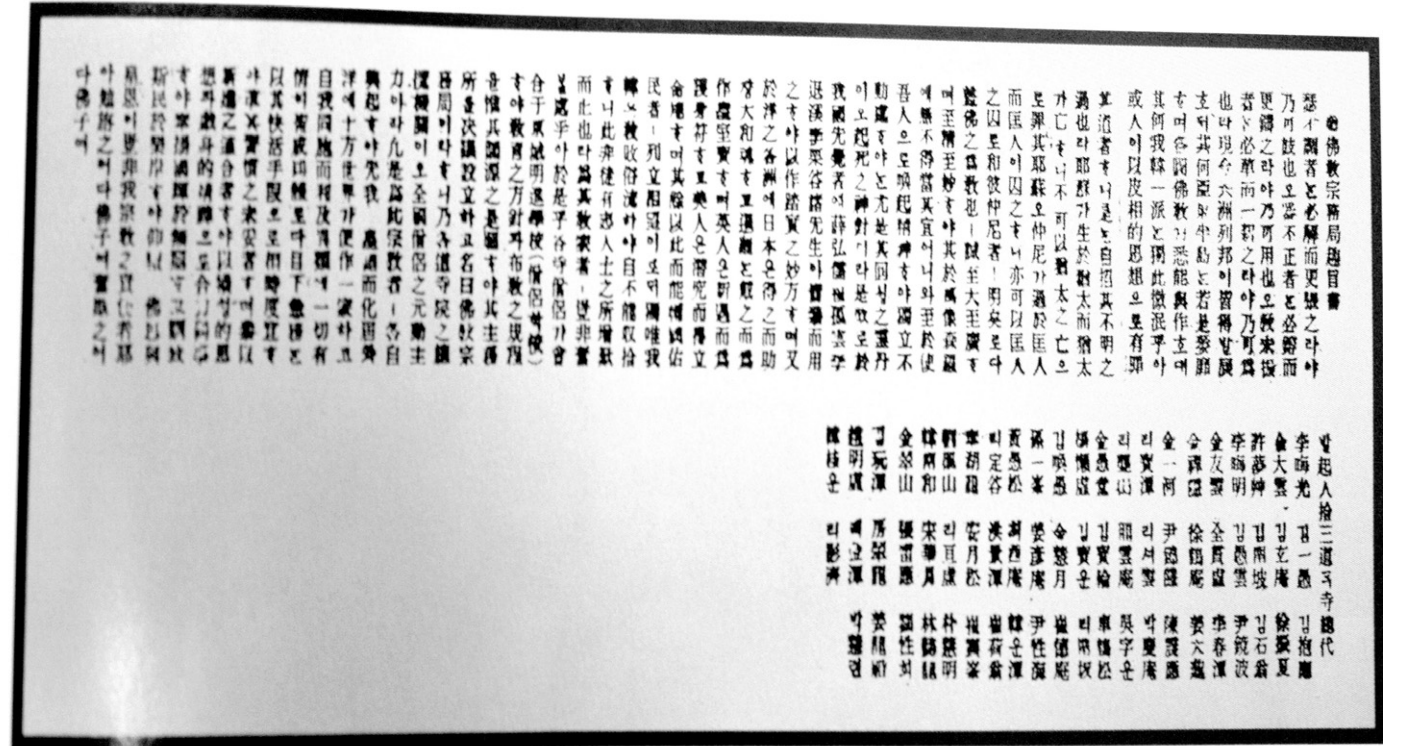
7. 이번의 동맹체결은 관할처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

널리 알려진 맹약 7개조항의 전문(全文)이다. 마지막에는 양측의 대표자 이회광과 히로쓰 세쓰조(弘津説三)의 이름이 적혀있다. 조문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당시 맹약의 체결과정과 원종의 처지가 나타난다. 세 번째 조항에는 '조동종이 원종의 설립인가를 얻는데 노력한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원종에 대한 공식 인가는 한국의 최초이자 대표종단임을 천명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불교계를 통일시키고 결집할 수 있는 근본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義)는 사찰령이라는 새로운 불교정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가 청원에 대해 유보하고 있었다.

결국 사찰령으로 인해 한국불교계가 일본의 조동종과 연합해 결성하거나, 진종 등에 몰려 들러붙는 맹약, 임제에 부속시키거나 원종 등을 창립하는 등의 행사는 모두 다 와해돼 버린 것이다. 한국 불교의 독자성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버린 것과 같다.

다음 첫째와 둘째, 넷째와 다섯째 조항은 원종의 본질과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맹약의 배후에는 일진회(一進會) 회장 이용구(李容九, 1868~1912)의 추천으로 원종의 고문이 된 다케다 한시(武田範之)가 있었다. 다케다는 1904년 조동종의 한국포교사로 임명되었으며, 이용구를 만나 한일합방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그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이나 동학농민전쟁에도 가담하였으며, 원종의 설립 이후 고문으로 있으면서 실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용구와 다케다, 그리

# 점령위한 표면상 연합... 당시 韓 불교 한계



1908년 3월 17일 매일신보에 소개된 불교종무구 발기 취치서. 이취치서는 원종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발기인이었던 13도 사찰의 대표 명단도 실려 있다.



일본불교 조동종 승려로서 한국 원종의 이회광과 이른바 조동종맹약을 체결한 한 다케다 한시. 그는 당시 원종의 고문이었다.



1910년 조선불교중앙회소 겸 중앙포교소로 활용되었던 각향사 전경. 원종종무원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당시 중정인 이회광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고 이회광 스님의 성향으로 미루어본다면 그 출발부터 친일적 성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한국불교의 발전이나 독자성 실현은 엄연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오로지 모든 사찰을 통일하는데 힘을 기울였던 이회광 스님은 13도 사찰을 대표하는 원종설립의 신고서를 한성부윤(漢城府尹)에게 보냈지만, 인가를 받지 못하자 일본불교의 원조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급기야 1910년 9월 전국 72개 사찰의 위임장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이시가와 소도우(石川素翁)를 만나 합병문제를 논의하였다. 당시 이시가와 관장은 한국불교가 아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등한 연합은 곤란하니 일정기간 조동종에 부속

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회광 스님은 연합의 위임을 받았지만, 부속의 위임은 받지 않았다고 고집하였다. 스스로도 제안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맹약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조동종 관장 아래의 종무대표와 맹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불교계의 통일과 결집의 염원에서 이루어진 굴욕적이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불교계의 대사회적 지위, 해금 이후 불교계에 산재한 과제였다. 성급하고도 순진한 판단이었다. 조선총독부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조건이었다. <조계종사> 근현대편은 스님이 원종의 조동종 부속 제의에 연합을 고집한 것에 대해 "이회광 종정의 마지막 자존심을 느

낄 수 있었다"고 기술하였으며, "원종 설립인가 문제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가를 알게 해준다"고 하였다.

반면 정광호는 "1600년의 전통이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한 셈"이라고 하였으며, 최병현은 "표면상으로는 연합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명맥이 원종을 조동종에 병합시키는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울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조동종 맹약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크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쬐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까요?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힌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열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 7 마강용 염주를 통과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펜던트와 마강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 9 두 줄로 2회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선용인문학출판  
20-201-0003592  
20-201-0004171  
20-201-00055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렘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체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마듬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